

보도일시 (인터넷) 2024. 9. 25.(수) 11:00,
(지면) 2024. 9. 26.(목) 조간

배포 2024. 9. 25.(수) 06:00

해양수산부, 인공증식 남방방게 자연 방류

- 해양보호생물 종(種)복원 기술 개발로 2세대 인공증식 성공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9월 26일(목)에 해양보호생물인 남방방게 300마리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 연안에 방류한다고 밝혔다.

남방방게*는 모래펄에 굴을 파고 살아가는 소형 게류(類)의 일종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제주도와 남해안 일대에서 서식하고 있다. 최근 연안 개발과 서식지 훼손으로 개체 수가 급감하고 있어, 2006년에 해양수산부는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였다.

* 참게과의 갑각류, 갑각길이 약 19mm, 너비 약 23mm 내외의 소형 게

그간 해양수산부는 멸종위기에 처한 남방방게의 개체 수 복원을 위해, 국립해양생물자원관(관장 최완현)과 함께 서식 환경을 조사하고, 인공증식 사업을 지원해 왔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2017년 국내 남방방게 서식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2019년에는 국립군산대학교(총장 이장호)와 협력하여 인공증식 기술을 개발하였다. 또한 연구 성과로 탄생한 남방방게 유생을 19년과 '20년에 각각 100마리씩 제주도 구좌읍에 방류하기도 했다.

올해 방류 대상인 어린 남방방게 300마리는 '20년 실내 부화로 태어난 암수 개체에서 얻은 인공증식 2세대이다. 기존에는 자연에 서식하는 개체를 채집하고 포란을 유도해 유생을 얻었다면, 이번에는 실내에서 인공증식으로 태어난 모체가 낳은 세대를 서식지에 방류할 예정이다. 2세대 유생의 자연 방류는 단순한 채집·번식이 아니라 생물의 생활사 전반을 인공 환경에서 유지할 수 있는 완성도 높은 기술을 증명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

* 2세대 인공증식: 자연 상태에서 대상을 직접 채집·포획해서 인공 증식시키는 1세대 사육기술과 달리, 자연 서식 개체에 대한 훼손 없이 생물 복원이 가능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남방방게 2세대의 자연 방류는 그간 진행되어 온 인공증식 기술 고도화의 성과”라며, “앞으로도 해양생물 보호와 생태계 보전을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해양환경정책관 해양생태과	책임자	과 장	신재영 (044-200-5310)
		담당자	사무관	고은비 (044-200-5315)

□ 남방방게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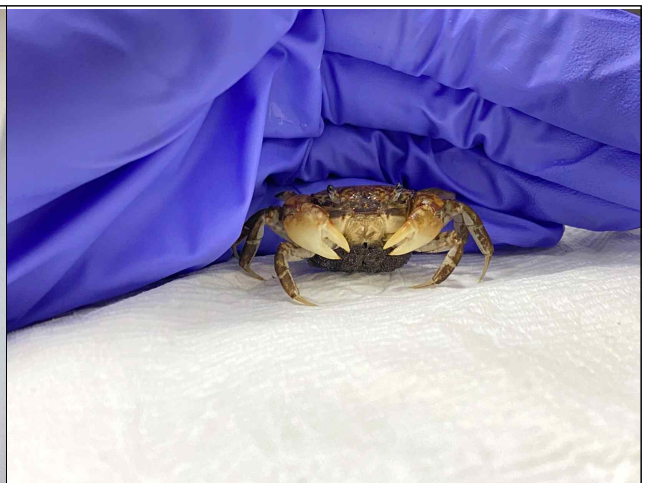
남방방게 성체



남방방게(어린게) 사육 구조



남방방 어린개체



남방방게 성체 사진 추가